



□발행일 : 2019년 4월 16일(화)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산업정보실 □labor.org / @metalunion □전화 : 02-2670-9507

“올해 중앙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 징검다리”

16일, 2019년 1차 중앙교섭 ... 사용자협의회, “사용자 요구는 다루지 않는다”, 문제 제기



금속노조가 4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9년 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상견례를 하고 교섭 원칙을 확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올해 중앙교섭은 사업장 단위 교섭을 뛰어넘어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소모하는 논쟁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의 대안을 만들어 단위사업장 교섭을 한발 앞서 이끄는 중앙교섭을 만들어보자”라고 인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매년 또는 4년째 나오는 노조 요구를 밤새워 논의해 합의했는데 다시 합의하자고 한다. 사용자 측 요구는 다루지 않는데 노조 요구를 어떻게 논의할까 고민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이 말한 4년째 반복하는 요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사 간 양보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라면서 “노사 사이에 현실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라며 교섭에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위원 소개에 이어 중앙교섭 진행원칙을 확인하고 1차 중앙교섭을 마쳤다. 올해 중앙교섭에 13개 지역 6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2차 중앙교섭은 4월 23일 대전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연다.